

국제푸른나무 2016년도 1차 방북보고서

방북 기간 및 방북자 명단	2016~ 2월 13~ 2월 24일 국제푸른나무 공동대표 신영순 1명
방북 경로	인천 - 심양 - 평양 - 심양 - 인천
방문지역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 장애어린이회복원 조선장애자 체육협회 과학기술전당 금컵 식료공장 황해북도 육아원 분원 및 영양빵공장

이번 평양 방문은 북한에서 4차 핵실험과 위성을 발사하였고, 남한 정부에서는 강경한 대북제재를 발표하고 전격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 상황은 최악의 대결 상태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푸른나무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인도적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원칙하에 공동대표인 저는 2016년도 들어 첫 방북 길에 올랐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북통일을 위해 북미 평화 협정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끼며, 민족 평화와 화해의 길이 완전히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녘에 장애인을 지원하는 통로만이라도 소통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2월 13일, 14일 / 토요일, 일요일

첫날 심양에 도착해서는 2016년 새해 사업 논의와 장애인 올림픽 참가 문제 등 중요한 협의들을 위해서 심양에서 하루를 머물며 리분희 소장과 협력 분야에 필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고려항공 스케줄이 바뀌는 바람에 다음날 밤 9시경 심양 비행장으로 나갔으나, 태국에서 오는 고려 항공이 많이 연착되어 새벽 3시가 되어 평양

순안 비행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영하 13도의 추위에 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서 마중을 나오셔서 4시간이나 추위에 기다렸다면 반갑게 맞이 해주시고 고려호텔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새벽 4시까지 호텔에서 기다리던 담당 안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호텔 방 열쇠를 받아 방으로 올라가 긴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2월 15일 ~ 17일 (월~수)

이번 저의 방북기간에 북한에서는 광명성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참가한 국제 피겨스케이팅 경기대회와 수중발레, 제일동포들의 금강산 예술단 공연,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방문, 대동강변 숲섬에 새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 방문 등 해외동포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는 전자동으로 갖가지 식품들이 생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숲섬에 위치한 과학기술전당 건물은 규모나 설비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으로 건축되어 있었는데, 각 분야대로 역사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을 어린이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와서 찾아 볼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정보화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1층에는 장애인 열람실과 장애인 위생실 등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전당 장애인열람실



과학기술전당 장애자 정보책자

2월 18일 ~ 23일 (목~화)

3일간의 행사 및 탐방이 끝난 후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김문철 부위원장과 반갑게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기관과의 2016년도 협력사업들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의에 들어

갔습니다. 특별히, 지난 12월 미주 국제푸른나무에서 보낸 40피트 청각검사실 기자재들과 채소 씨앗들도 우여곡절 끝에 기적같이 남포항에 무사히 도착하여 2월 18일 평양 장애어린이회복원 창고로 모두 운송해 온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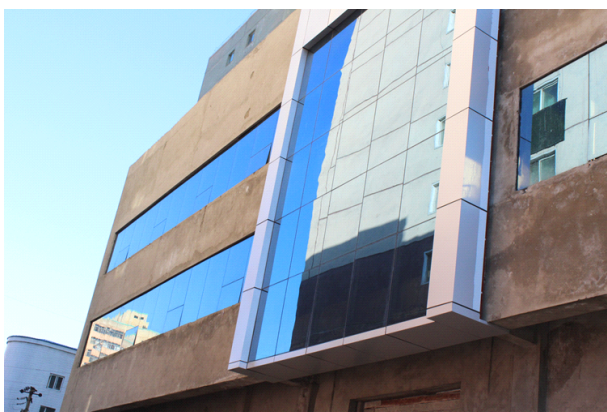


장애인예술단 TV출연 모습

2016년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의 협력사업들은 :

1. 동대원장애인운동관 건축을 4월 말까지 완공하고, 5월 중순 준공식 하기로 함

동대원장애인운동관은 300평이 넘는 규모로써 지상 3층 지하 1층 입니다. 장애인들과 일반인이 함께 직원으로 일하며, 시설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정기 회원제로 회비를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베어커리, 식당, 장애인보장구 판매, 안경점, 보청기점, 찜질방, 목욕탕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장애인 보장구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대원장애인운동관 외부 전경



동대원장애인운동관 내부 전경

건물은 지하 1층 - 목욕탕 / 찜질방 / 창고
지상 1층 - 카페 / 식당 및 부엌 / 베이커리
지상 2층 - 장애인 보장구 및 장애어린이 놀이기구 전시 및 판매
/ 보청기 맞춤 판매 / 안경점
지상 3층 - 장애인 운동관 및 헬스센터 / 휴식공간

2. 5월 11~15일에 평양에서 개최하는 일반인 및 장애인 탁구경기대회에 해외동포들과 외국인 참가에 대한 협의
3. 북측 장애인 선수단 2016 리우데자네이루 장애인올림픽 참가 협력 협의
4. 장애인올림픽 참가를 위하여 4월부터 심양 장애인운동관에서 전지훈련에 대한 협의
5.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의 균형적인 영양섭취를 위한 온실 채소재배 협력지원 합의
6. 남북관계가 개선 되는대로 남북장애인 합동문화 예술 공연과 남북 장애인 친선 탁구 경기 등 남북 사회문화교류 계획을 실현하기로 재확인함

이번 1차 방북을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끼며, 우리 민족의 미래에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월 24일 / 목요일

그 동안 계속되어온 남북 경색 국면으로 지방의 여러 사업장을 둘러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장애인원아지원협력사무소 공동소장으로서 다음부터는 지방의 장애인 특수학교 방문을 허락해 주기를 조장련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방북 기간 중 21일 일요일에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호텔로 돌

아왔는데, 조선중앙TV 방송국에서 개국 이래 처음으로 조선장애자예술단의 공연을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을 방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세련되고 멋진 장애인들의 공연이 북한 전역에 방영되었습니다. 다음날 호텔 직원들과 저를 아는 사람들이 공연이 너무도 감동이었다고 모두 극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남북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 평화의 작은 통로를 지키는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며, 방북을 이어 왔습니다. 10여년을 통일 복지기초를 다지는 일을 함께 해 온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 국제푸른나무와의 협력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민족 화해와 협력의 평화의 창구로써 큰 역할을 감당 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방북 기간 중 2월 22일은 음력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민속 명절 공휴일로 정해 있어 모두 가족끼리 나들이를 하는 광경이 눈에 띄었고, 광장과 대동강 가에서는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팽이 돌리기, 자치기, 윷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등 다양한 정월 대보름을 즐기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월대보름 둥근 달을 바라보며 하루속히 남과 북에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국제푸른나무가 북녘과 협력해 나가고 있는 장애인, 원아 사업들은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민족 사랑의 실천이며, 이러한 사랑실천이 퍼져나갈 때, 비로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실현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루 빨리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의 창구가 열리기를 바라며, 새봄과 함께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오가는 민족화해의 길이 다시 한 번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국제푸른나무 공동대표 신영순 (Sue Kinsler)